

 경상남도 GYEONGNAM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2021 년 9 월 15 일, 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사무소
		2021 . 9 . 15 (수)

□ 기후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아시아의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 취소 압력 커져

6 개국이 전 세계적 신규 석탄 프로젝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1 월의 유엔 기후정상회의(COP26 UN climate summit)가 이러한 석탄 발전 프로젝트들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말했다.

싱크탱크 E3G 가 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석탄 발전소의 용량은 2015 년 파리 협정 이후 76% 감소했고 44 개국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방글라데시 등 6 개국에서만 여전히 세계의 석탄 발전의 중심에 있으며, 아직 건설 전인 계획된 프로젝트의 4/5 이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장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화석 연료인 석탄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기후 변화 운동가들에게 중요한 초점이 되어왔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과 보험가입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석탄 사용을 신속히 종료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 2 도, 이상적으로는 1.5 도로 제한하고 더 가혹한 폭풍, 홍수, 산불, 그리고 농작물 실패와 같은 빠르게 악화되는 기후 위험을 피하는 세계적인 목표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세계 석탄 발전의 75 퍼센트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석탄 매장량 많아 석탄 에너지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발전시설과 광산을 포기하거나 신규 발전소 건설을 폐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의 가격 하락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석탄보다 녹색에너지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석탄에너지가 주요 축으로 남아있다.

석탄의 경제성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비해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졌고, 자산의 위험은 증가했다고 E3G 의 보고서 저자이자 이사인 크리스 리틀코트(Chris Littlecott)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파리 기후 협정 이후 프로젝트가 7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신규 석탄 발전 용량의 약 53%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두 개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금융기관은 올해 해외 석탄 금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내 석탄 사업뿐 아니라 해외자금 지원사업도 재검토 중에 있다.

중국은 해외에서 석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마지막 국가이라고 그린피스 동아시아(Greenpeace East Asia)의 베이징에 본부를 둔 정책 고문인 리 슈오(Li Shuo)는 톰슨 로이터 재단에 말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해외 석탄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앞서 차단해가야 한다. COP26 이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연말 기후 정상회담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국가들이 더 야심찬 배출 감축 계획을 약속하게 하고 그것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COP26 정상회담에서 핵심 주제인데, 이 COP26 정상회담은 지구 온난화를 1.5 도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회담의 사회를 맡게 될 영국 관리 알록 샤르마(Alok Sharma)는 11 월에 스코틀랜드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 석탄 발전을 역사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국가들은 새로운 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약속의 물결이 일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계획되었거나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석탄발전은 구축 비용을 갚기 위해 수십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기후 과학자들과 운동가들은 말한다.

아시아에서 건설 중인 석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계획된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만이 세계 기후문제를 위한 해결책이며, 그것이 COP26 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짜 목표이라고 서울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 비영리 단체인 우리 기후연구소 책임자인 윤세종(Sejong Youn)이사는 말했다.

윤 이사는 중국이 언젠가는 해외 석탄 금융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중국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운동가인 아르티 인달라 짜끄라네가라(Arti Indallah Tjakranegara)는 석탄을 버리려는 모든 노력은 아시아 전역의 빈곤한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2 억 6 천만 명의 국가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석탄 생산 지역의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세계 최고의 발전용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 에너지의 60%를 석탄에서 얻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60 년까지 석탄, 석유, 가스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며, 그 때 에너지 수요의 85%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연구하는 인도네시아의 비영리 단체인 야야산 휴마니스 및 이노바시 소시알 (Yayasan Humanis dan Inovasi Sosial)의 관리자인 짜끄라네가라(Tjakranegara)는

에너지 전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실업, 환경 악화, 불평등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와 전화를 통해 말했다.

□ 아시아 주가, 최근의 약세는 방어했으나, 중앙은행들의 테이퍼링에 관심 고조

아시아 주가는 이틀간의 하락 후에 금요일 반등했지만, 세계 투자자들이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책을 끝내기 위한 신중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분위기였고, 이로 인해 외환 시장도 잠잠했다.

모건스텐리의 아시아 자본시장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는 일본을 제외하고 장 초반에는 0.47% 올랐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지난 주 증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0.8% 가량 하락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주가는 0.25% 올랐고 미국 증시의 선물인 S&P 500 e-minis 는 보합세를 보였다.

호주 광산 업종은 알루미늄 가격이 몇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0.4% 올랐고 중국증권 시장의 블루칩도 0.5% 올랐다.

그러나 전날 중국 기술주가 당국이 게임업체들을 불러들여 또 다른 타격을 입힘에 따라 2.5 퍼센트 이상 하락한 것에 대한 반등으로 홍콩지수가 1.5%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

SEI의 아시아주식 담당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존 류(John Lau)는 언젠가 투자자들은 중국 기술주에 대하여 이 가격대가 실제로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할 것이며, 제로(0)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충분히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존 류는 강조하였다.

아시아 증시는 목요일 뚜렷한 방향성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 조 8,500 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분기에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시행된 긴급 채권 매입을 늦출 것이라면서 테이퍼링의 서막을 알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43%, S&P500 지수는 0.46%, 나스닥종합지수는 0.25% 각각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보통 고용 수치가 더 좋아졌다는 것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최근 몇 달 동안 주가를 지탱해 온 대규모 자산 매입을 연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인 미셸 보우만(Michelle Bowman)은 8월에 약세를 보이는 일자리 증가로 인해 올해 말까지 매달 1,200 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줄이려는 중앙은행의 계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CB 발표 이후 지난 주 말 유로화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아시아 시간대에 유로당 1.1820 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달러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거의 매주 0.5 퍼센트씩 상승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수익률은 1.307%로 1.3%로 장을 마감한 미국시장대비 소폭 상승했다.

미국 원유는 배럴당 0.1% 하락한 68 달러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는 0.15% 하락한 배럴당 71.34 달러를 기록했다.

□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인도네시아가 중국, 한국, 유럽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 석탄 기준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월요일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9월 기준 석탄가격이 톤당 150.03 달러로 8월의 톤당 130.99 달러보다 14.53% 인상되었으며, 이는 2011년 11월의 톤당 116.65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아궁 프리바디(Agung Pribadi) 에너지광물자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로 국내 석탄 생산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의 석탄 수요 증가가 이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주요 벤치마크인 네덜란드의 TTF 허브 자료에 따르면 7월 6일 유럽의 가스 가격은 메가와트 시간당 38.65 유로(45.91 달러)를 기록했다.

에너지컨설팅(consultancy Inspired Energy) 닉 캠벨(Nick Campbell)이사의 7월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높은 가격은 기록적인 가스 재고 부족, 가동 중단, 장기간의 생산 문제 등으로 아시아의 적극적인 가스 구매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말했다.

석탄가격은 2020년 9월 톤당 49.42 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전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5월 톤당 89.74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6월 석탄가격은 거의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의 헨드라 시나디아(Hendra Sinadia) 전무이사는 이러한 가격 상승은 세계 양대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장마철이 계속됨에 따라 생산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 자카르타포스트에서 중국의 석탄 수입업자들은 호주와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어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향후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협회가 향후 몇 달 동안 기후 조건, 호주-중국 관계,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테이퍼링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이 세계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구로부터 채무 아닌 90.23 조 루피아 자금 지원 받는다

중앙은행(BI)은 국제통화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으로 부터 차입금이 아닌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의 형태로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되었다.

BI 도디 줄베르디(Doddy Zulverdi) 국제부 담당 전무이사는 이번 SDR의 할당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IMF 회원국들에게도 분배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유동성 원조는 1998년 위기 때 인도네시아 정부가 받은 자금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 IMF의 유동성 지원은 1998년 위기 때 받은 자금 즉 정해진 시간 내에 돌려줘야 하는 차입금 성격의 자금과 달리 국제통화기구(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라고 중앙은행 도디 전무이사는 8일 가상 미디어 행사에서 말했다.

또한 도디 전무이사는 회원국들의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IMF에 의한 SDR 할당이며, 상환기간이 없어 5년 또는 10년 후에 SDR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1년 8월에 IMF는 SDR 추가 할당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회원국들에게 배분했다.

인도네시아가 받은 SDR 할당액은 44억 6천만 SDR로 63억 1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번에 할당된 SDR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IMF의 유동성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1,44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 외환보유고는 9.1개월의 수입 대금 결제 또는 8.7개월의 수입대금 결제 및 부채상환액에 해당하는 자금이며, 국제적 적정 보유 기준인 3개월의 해외 부채 상환액과 수입대금 지급액 보다 높다.

□ 신한은행, 인니 코로나 피해 수출기업 지원 정책자금 참여

신한은행이 인도네시아 국책은행이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IEB)이 지난해 7월 코로나 19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보증 대출에 총 28개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 가운데서는 신한은행이 참여했다. 이외에 BNI 은행, BRI 은행, BTN 은행, 만다리은행, BCA 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메이뱅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국내외 은행들이 다수 참여했다. 8월 말 현재 집행금액은 2조 2500억 루피아(약 1800억원)다.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지 일간지 비즈니스(bisnis)에 “정부와 은행들의 노력으로 보증 대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5 년 현지 메트로익스프레스은행을 인수하며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했고, 이듬해 센트라타마내셔널은행을 인수·합병(M&A)하며 덩치를 키웠다.

한편,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은 상반기 10 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년 27 억원에 비해 3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5,000 개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설치 중

국영석유가스 공사 Pertamina 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청정에너지 주유소 Green Energy Station (이하 GES)에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PLTS-Pembangkit Listrik Tenaga Surya)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PLTS 는 Jawa, Bali 및 Nusa Tenggara 에 있는 76 개 GES 주유소에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5,000 개 지점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Green Energy StationGES 주유소는 신 개념 청정에너지 주유소이다. GES 주유소는 소비자를 위한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 중 하나는 태양광 발전(PV) 또는 PLTS 를 독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PNRE(Pertamina New Renewable Energy)의 Dannif Danusaputro 대표이사는 “이 프로젝트는 Pertamina 생태계의 에너지의 일부다. Pertamina 내부에 PLTS 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9 월 2 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 년에도 자와, 발리, 누사 텡가라 섬에 걸쳐 63 개의 페르타미나 주유소에 총 385KWp 의 용량으로 PLTS 를 설치했다.

국영석유가스 공사 Pertamina 는 주유소 5,000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총 설치 용량은 약 31MW 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은 연간 34,000 톤이다.

Green Energy Station-1 주유소에서 PLTS 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29 개 아프리카 국가의 최소 700 개 주유소에서 옥상 태양광을 사용했다. 인도에서는 PLTS 가 총 270MWp 의 용량으로 설치되었으며 인도 정부는 향후 4 년 내에 인도 전체 주유소의 50%에 PLTS 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Pertamina 가 녹색 주유소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Pertamina 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2030 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9% 줄이기 위한 정부의 목표를 지원한 다는 복안이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Pertamina 는 2030 년까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17%에 도달하는 녹색 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